

Crompton, 고무화학 담합 “벌금”

미국 법무부, 6년 담합에 5000만달러 부과 ... 캐나다도 700만달러

Crompton이 고무화학제품 가격담합을 인정하고 총 57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최종 법정판정에 이르기 전에 미국 법무부에 5000만달러를 지불하고 캐나다에도 900만달러(7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Crompton은 Bayer 및 Akzo Nobel과 Solutia의 고무화학 합작기업 Flexsys와 함께 고무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및 캐나다, EU(European Union)로부터 제소당한 바 있다.

Crompton은 자회사 Uniroyal Chemical을 통해 고무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Crompton은 Urethane 및 Urethane Chemical 제조용 고무화학제품을 판매하면서 2사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rompton이 가격담합을 주도한 고무화학제품은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을 비롯 Nitrile Rubber, PVC(Polyvinyl Chloride) 열안정제 등이다.

가격담합 기간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거의 동시에 자행했는데, EU는 별개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Crompton은 2004년 230만달러, 2005년 230만달러, 2006년 650만달러, 2007년 1120만달러, 2008년 1620만달러, 2009년 1850만달러를 납부해야 하는데, 2003회계연도에 이미 4520만달러를 계상했다.

<화학저널 2004/05/24>